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토크\_11월1주(2)>

## 해운대 바닷가에 또 고층 개발? 주목 않는 지역 언론...계획부터 따져본 KBS부산



▲ '해운대 그랜드호텔 난개발 논란' 관련 보도 앵커브리핑 화면 캡처(11/3·4, KBS부산)

지난해 폐업한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밀실 매각', '위장 폐업', '러시아 마피아 자금세탁'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KBS부산은 호텔을 허물고 사실상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난개발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11월 3일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4일 내부고발자로부터 확인한 과거 금품 로비 정황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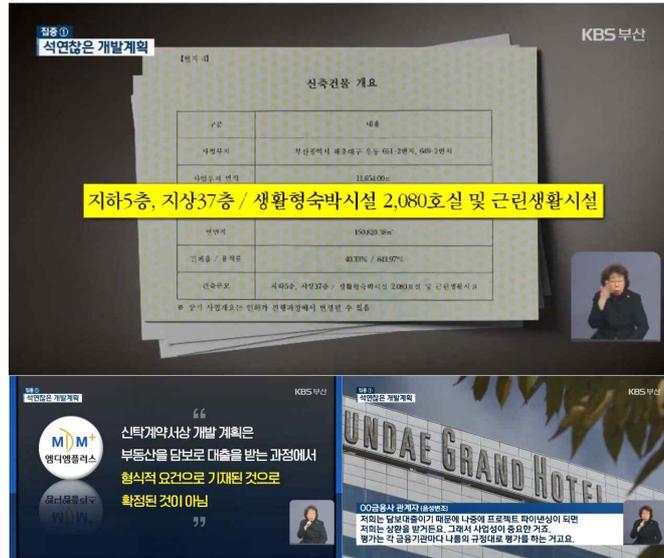
> [집중1] <또 대규모 주거단지 전략?...석연찮은 개발계획>(최위지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0295>

> [집중2] <해운대 바닷가에 2천 가구 들어서면?>(공웅조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0299>

<또 대규모 주거단지 전략?...석연찮은 개발계획>(11/3, 최위지 기자)은 MDM플러스그룹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탁계약서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상 37층 규모로 높이 약 103m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구에 100m 넘는 건축물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KBS부산의 문제 제기에 MDM플러스그룹은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개발계획서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금융권은 땅의 담보 가치와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MDM 측이 호텔 터를 인수한

지 7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 대규모 주거단지 전략?...석연찮은 개발계획>  
(11/3, 최위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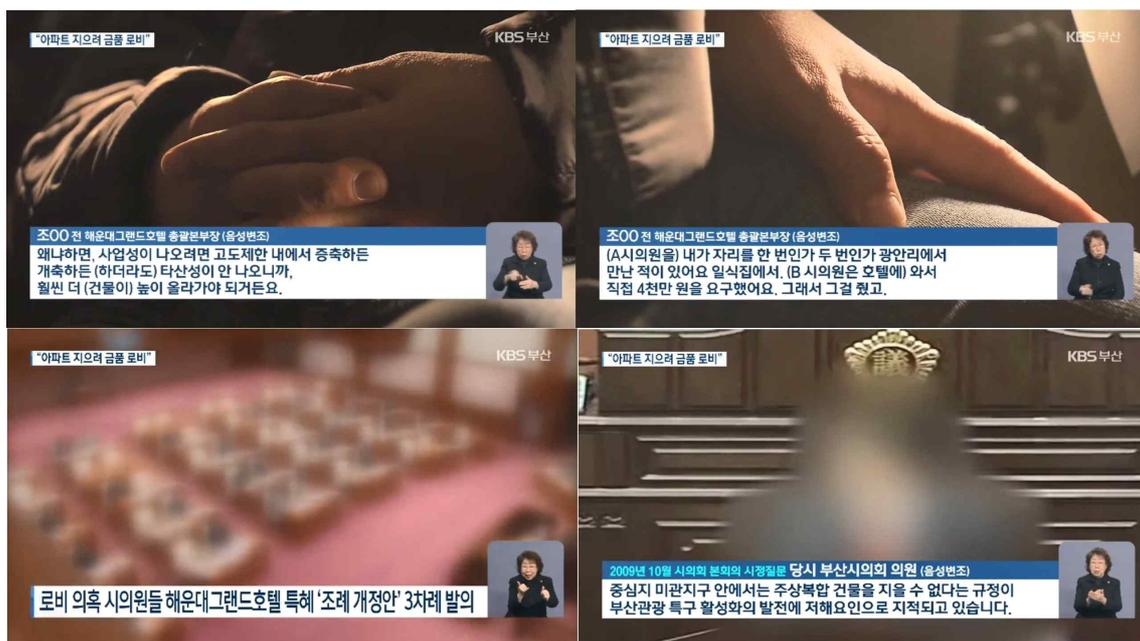
이어 <해운대 바닷가에 2천 가구 들어서면?>(11/3, 공용조 기자) 은 MDM플러스 그룹이 제출한 신탁계약서를 토대로 개발이 진행될 시 해운대 일대에서 불거질 문제를 짚었습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 면적을 절반 이상 적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주차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용도 변경으로 주변 호텔도 용도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해운대 바닷가에 2천 가구 들어서면?>(11/3, 공용조 기자)

KBS부산은 ‘해운대 그랜드 호텔’ 개발 논란 보도를 다음 날에도 이어갔는데요. <“호텔 허물고 아파트 지으려 금품 로비”>(11/4, 공용조 기자)에 따르면 해당 터의 용도 변경

추진 움직임은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해운대 그랜드호텔을 인수한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 고도제한을 푼 뒤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요. 기사는 해운대그랜드 호텔 내부고발자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의 용역계약서, 금품 로비 정황 등을 전달했습니다.



▲<“호텔 허물고 아파트 지으려 금품 로비”>(11/4, 공용조 기자)

‘해운대 그랜드호텔’ 개발 논란은 <해운대그랜드호텔 자리에 레지던스 짓나?>(부산일보, 7/28, 11면), <“해안 고층 레지던스…관광 경관 훼손 우려”>(국제신문, 9/17, 6면)로 보도된 바 있지만 모두 단발성 보도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이후 '해운대 그랜드호텔' 개발 논란은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KBS부산은 11월 3일과 4일 <뉴스9> 의 주요 뉴스로 보도해 논란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렸습니다. '비리백화점'으로 남은 엘시티를 비롯해 난개발에 대한 지역 언론의 감시는 사후약방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KBS부산의 이번 보도는 개발 계획단계서부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언론의 감시 역할이 돋보였습니다.